

우리교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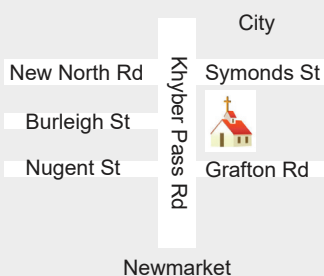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풍성한 생명' 성경공부에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반을 시작으로 월요일반, 화요일반, 목요일반이 개설됩니다. 시작할 때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 말씀 기초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2월 정기 당회는 성경공부 관계로 오는 수요일예배 후에 있습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에 제직회가 있습니다.
-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2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회원 모두 참여하는 연합의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 공동체별 사진 촬영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바누아투와 차드 공동체, 다음 주는 터키와 통가 공동체입니다.
- 2019년 교회 생활 안내지 요람이 출간되었습니다. 참조하셔서 신앙생활에 증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 다음 주는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더불어 함께'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 지난 토요일 밑알 장애우를 섬긴 성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번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장애우를 돌볼 교사가 필요합니다(쿠키 개당 \$2).
-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주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 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이성훈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21권 8호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2019년 2월 24일 주일

2019 신앙생활 표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시편 73:25

●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최호림자매

● 3월 기도 순서

2부예배  
3일 김철재집사  
10일 박덕철장로  
수요일예배  
6일 박후임권사  
13일 심정미집사  
청년예배  
3일 이예은자매  
10일 김준섭형제

● 3월 예배안내

김철재/김은우

● 3월 교회사역

8일(주일): 저녁기도회 (부부선교회)  
10일(주일): 사순절1  
11일(월요일): 성경통독 시작  
27일(수요일): 공동체 주관 수요일예배(네팔)  
31일(주일): 성찬주일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찬양	주일찬양단
예배로 부름	마태복음 11:28-30 인도자
◎ 찬송	27장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84장 다같이
대표기도	경덕현 집사
성경봉독	열왕기상 18:36-44 인도자
찬양대 찬양	주님의 놀라운 사랑 --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현실을 바꾸는 사람 이태한 목사
찬송	351장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445장 다같이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2여선교회 헌신예배)

오후 7시 30분  
인도: 이태한목사

기도	김선화집사	찬송	321장
성경봉독	마가복음 10:42-45	중보기도	다같이
설교	모든 사람의 종/이태한목사	주기도	다같이

1.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 전파에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2. 양육 훈련을 잘 받아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고난과 질고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남한에 대한 소식과 기도제목입니다.

지난 주간(2월 11-17일) 한국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에서 기도 주간으로 삼고 남북한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지난주 북한에 이어 남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낙태죄:** 정부가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연간 5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낙태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특성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주장하며 낙태 규모 확인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개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권 존중 차원에서 낙태죄 폐지나 완화에 줄곧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현행법은 낙태의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유전적 문제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 특별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의료계에서는 낙태를 도운 죄로 처벌받은 조산사의 케이스로 헌법재판소를 통해 낙태죄의 위헌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재판관 교체 등이 있었고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이제 7년 만에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국경제:** 한국경제학회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은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정작 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고 최저임금 상승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소득양극화를 악화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6만7000명), 음식숙박업(-4만명)에서 지난달에만 11만 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취지와 달리 소득 양극화 심화, 고용 악화 등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지표에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8.4% 줄었습니다. 근로소득은 22.6%, 사업소득은 13.4% 감소한 반면 상위 20%(5분위) 가계소득은 7.1% 늘어 계층별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됐습니다.

기도제목

- \* 무죄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 \*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들을 위한 바른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고용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민생이 안정되게 하소서.

Knowing Your Father (당신의 아버지를 알아가십시오)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to those who ask Him. - Matthew 7:11 NIV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The son of a wealthy man expected to receive a sports car for his graduation. Instead his dad called him into his study, told him he loved him, and handed him a box. When he opened it he found a leather-bound Bible with his name inscribed inside. Angrily he said, "With all your money, you give me a Bible!" and stormed out. They never spoke again.

한 부자의 아들이 스포츠카를 졸업 선물로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아들을 서재로 불러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에게 상자 한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가죽 성경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많은 돈으로 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저 성경 한권이란 말입니까!"라고 화를내며 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더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Years later, he got a call to say his dad had died leaving him everything. Going through his father's things he found the Bible, still in its box. Tearfully he noticed that his dad had underlined Matthew 7:11, "And if ye then,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shall your Father... give... to them that ask him?" As he read it, a car key fell from inside. It had a tag with the dealer's name on it - for the sports car he'd wanted years earlier! On the tag beside his graduation date were the words, "Paid in full - love, Dad."

수년이 흐른 후 아들은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살펴보던 중 여전히 그 상자에 들어 있는 성경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마태 복음 7장 11절에 줄을 그어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 구절을 읽을 때 그 성경책 안에서 자동차 키가 떨어졌습니다. 그 키고리에는 바로 그가 수년 전에 원했던 바로 그 스포츠카 자동차 대리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그의 졸업날짜와 함께 옆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완전 - 사랑하는 아빠로부터"

Our Heavenly Father knows what we need, when we're ready for it (which is more than most of us know), and how to get it to us. Listen,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Then you will call up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listen to you.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Jer 29:11-13). Signed- "Your Heavenly Father."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준비 되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들어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29:11-13). -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